

## Impossible photography

00:15	저는 사진술을 공유하고자 왔습니다. 아니면 이게 사진술인가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이것은 당신의 카메라로 찍을 수 없는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00:26	하지만, 제가 사진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제가 15살이었을 때 제 첫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림에 대한 열정과 섞였는데, 이것은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기에 그 과정은 대신 계획에 있었기에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 과정은 당신이 작동 버튼을 누르면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게 사진술은 맞는 장소, 맞는 시간에 있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00:57	그래서 저는 무언가 다른 것, 그 과정이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서 시작하는 것을 창조하고 싶었습니다. 바쁜 도로를 따라 진행되는 공사 같은 사진 말입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현실주의를 유지합니다. 아니면 어둡고도 화려한- 그런 사진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현실주의를 유지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진들 말입니다. 제가 현실주의라고 할 때, 저는 포토 리얼리즘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은 당신이 실제로 찍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저는 그것이 어떻게든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속임수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에 생각하는 짧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진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실상 순간을 담는 것보다 아이디어를 캡처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01:51	하지만 어떤 속임수를 써야 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색이나 세부사항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빛에 무언가 비밀이 있나요? 무엇이 착각을 일으키게 하나요? 가끔 관점이 착각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2차원적 평면에 어떻게 보여지는 지에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02:21	그래서 저는 기초는 꽤 단순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저 그것을 각자 다른 조각의 현실을 가져와 다른 현실을 창조해 내기 위해 가져다 놓는 현실의 퍼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세 가지 물리적 물체들이 있는데, 3차원 세상에서의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조합되면, 그것들이 마치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3차원적인 어떠한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것이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단순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뇌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조합할 때에도 같은 과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서로 다른 현실들을 조합하는 데에 있습니다.
03:12	그래서 사진을 현실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은, 그것들은 우리가 심지어 생각해 보지도 못한, 우리 일상 생활에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진을 조합할 때에는, 곰곰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 이상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따라야 할 세 가지 간단한 규칙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그림들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합을 그것들은 이런 것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03:47	그래서 첫 번째 규칙은 조합되는 사진들이 같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합되는 사진들은 같은 종류의 빛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그림들은 두 요구 사항을 둘 다 만족시키지요- 같은 높이와 같은 종류의 빛에서 찍혔으니까요. 마지막 조건은 그것을 원활하게 만들어 다른 그림들이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는지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미지들이 구성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하세요. 색을 맞추고, 다른 이미지들 사이의 경계선의 명암과 밝기를 맞추고, 피사계 심도나 포화도(飽和度)를 저하시킨 색상 및 노이즈 등의 사진적 결함을 추가하고요, 우리는 다른 그림들 사이의 경계를 지워서 그림 하나가 기본적으로 백여가지의 층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게 합니다.
04:40	그리고 여기 다른 예가 있습니다. (웃음) 흔히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지형의 그림이고 아랫부분이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사실 이 그림은 다른 위치에서 찍은 사진들로 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소를 찾는 것보다 실제로 장소를 만드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머리 속에 있는 아이디어들과 타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계획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디어가 겨울에 떠오르면, 저는 제가 퍼즐의 조각들을 위해 다양한 장소들을 찾아다니느라 그것을 몇 달 동안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낚시 여행에서 찍은 것입니다. 해안은 다른 위치에서 왔습니다. 물 속의 부분은 채석장에서 찍은 것이고요. 그리고, 네, 저는 심지어 조금 더 스웨덴스러워 보이게 하기 위해 섬 꼭대기에 있는 집을 빨강색 하였습니다.
05:34	그래서 현실적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계획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스케치,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진들을 조합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조각들 하나 하나가 정교하게 잘 계획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진을 잘 찍는다면, 그 결과물은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매우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도구들, 그리고 우리를 제한시키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상상력입니다.
06:09	감사합니다.
06:11	(박수 소리)